

국민주택규모 APT 거실의 가구사용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using living room furniture in the apartment size for the common people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이 명 옥

연구조교 정 미 란

전임강사 안 옥 희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Lecturer : Lee, Myung-Ok

Research Assistant : Jung, Mi-Ran

Instructor : Ahn, Ok-Hee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x an appropriate quantity of space evaluation, focusing on important furniture room visual environment element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living room is affected by an evaluational factor among factors of space evaluation.
2. In the space estimation for the furniture, the wall furniture is important in the living room because the arrangement and occupying proportion of the wall furniture varies widely.
3. In the living room of the APT size for the common people an appropriate quantity of furniture is classified into 3 types of the occupying proportion.

As the floor occupancy proportion supporting furniture is 13~19%, wall furniture is 10~16% and total furniture which combined both the supporting furniture and the wall furniture is 23~34%. Second, The proportion occupying the wall is 6~9% for the supporting furniture, 9~20% for the wall furniture, and 21~31% for the total furniture. Finally the proportion occupying the space is 6~9% for the supporting, 6~10% for the wall furniture, and 11~16% for the total furniture.

I. 서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주거공간의 질적수준이 높아져 실내를 구성하는 장비 즉, 가구, 카펫, 커튼, 조명기구 등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실내장비적 요소 중 특히 가구의 사용은 多家具현상을 보이면서 주거공간의 협소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아파트의 경우는 공간의 획일화로 가구가 거주자의 질적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실내분위기를 구성하는 시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가구에 대한 연구는 가구배치의 방법론을 쉽게 설명한 Alexander¹⁾와 가구배치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를 한 미드(Margaret Mead)²⁾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가구량과 배치는 거주자에게 실크기의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³⁾ 있다는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주택내 가구가 적절히 선택되고 잘배치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가구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종래의 연구⁴⁾에서는 가구의 물리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의 어느 한쪽에만 편중된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물리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은 상호작용에 의해 그 평가나 효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공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국민 중 가장 많은 계층의 주생활을 포괄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를 택하였고, 단독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공간이 균일화된 아파트의 거실을 연구대상 공간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거실의 가구사용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거주자의 공간평가를 정량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보다 쾌적한 거실공간계획을 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거실공간의 심리적 평가를 받은 후,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미치는 공간평가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2) 가구배치에 따른 가구배치의 편리성과 가구량의 사용실태 및 가구배치와 양에 따른 공간평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3) 거실공간평가를 만족시키는 가

구량을 산출시키기 위해 적절한 가구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설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지와 조사표의 신뢰도(Cronbach's α 값 0.72)를 검사한 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의 대상은 거실공간에 한하며 국민주택규모(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전용면적 40m²~85m²이하)의 대구시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區別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191가구를 임의선정하였다. 심리적인 家具평가는 在宅시간이 가장 긴 주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물리적인 평가는 실측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1년 6월~9월(약3개월)로 대상 家口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훈련 받은 조사원(2인1조)이 조사도구 작성 및 실측조사를 병행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내용 개요

질문지	일반적 사항
	거실사용의 항목(생활행위)
	거실내 가구사용의식과 만족도 거실내 가구에 의한 공간평가
실측	거실공간치수 (가로×폭×높이)
	가구치수 (가로×폭×높이)
	가구배치 (스케치)

3. 자료처리

조사된 자료에서 가구의 치수 계산(가구의 바닥 점유율, 벽면점유율, 공간점유율) 및 거실공간 치수는 dBASE III*로 처리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ANOVA(사후

검증 : scheffé-test), Factor Analysis, Regression등을 사용하였다.

되어지며 거실내 기거양식은 절충식과 입식이 많아 가구사용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사항

일반적인 가족특성과 주거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적 사항

N = 191(100%)

변인	N (%)	변인	N (%)
가족수		남편직업	
2인 이하	15 (7.8)	전문,기술직	37 (19.4)
3인	28 (14.7)	행정,관리직	38 (19.9)
4인	91 (47.6)	사무,관리직	78 (40.8)
5인 이상	57 (29.9)	판매,서비스	17 (16.3)
가족구성		기타	31 (13.6)
3세대	18 (9.4)	월평균소득	
핵가족	166 (86.9)	70만원이하	30 (18.8)
복합가족	7 (3.7)	70~90	22 (10.5)
주부연령		90~140	91 (42.4)
30세 이하	26 (13.6)	140만원이상)	52 (21.2)
31~40세	68 (36.1)	거주년수	
41~50세	62 (32.5)	1~2년	63 (33.0)
51세 이상	34 (17.8)	3~4년	75 (39.3)
주부학력		5년 이상	53 (21.2)
중졸 이하	31 (16.2)	기거양식	
고졸	84 (44.0)	입식	75 (39.3)
대졸 이상	76 (39.8)	절충식	86 (45.0)
		좌식	30 (15.7)

조사대상의 가족수는 4인이 가장 많고, 가족구성은 핵가족 형태가 87%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주부의 연령은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고,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교육정도로 조사도구 작성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은 편으로 소득은 90~140만원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년수는 모두 1년이상으로 충분히 공간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

2. 거실내 생활행위

생활행위에 따라 선택되는 가구와 요구되는 기능이 달라지므로 먼저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위의 기능분화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행위의 27항목중 사전조사를 거쳐 12항목이 본조사에 사용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5요인이 채택되었다.

요인1은 「가족모임」 「독서」 「가족회의」 「가계부정리」와 같은 가족화합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단란요인으로 명명하고 요인2는 「어린이 놀이」 「육아」의 내용으로 육아요인으로 하며 요인3은 「T.V시청」 「전화」와 같은 문화적인 차원으로 문화생활요인으로 요인4는 「가장의 취미생활」 「주부의 취미생활」의 내용으로 취미생활요인으로 명하고, 요인5는 「예우할 손님접대」 「친한 친구접대」의 항목으로 접대생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75.9%로 실태 결과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기서 가족단란요인이 29%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거실이 가족단란의 공간으로 정착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거실이 우선은 단란을 위한 장소라는 여러 학자들¹⁰⁻¹²⁾의 이론 및 단란공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연구한 梁瀾¹³⁻¹⁷⁾등의 이론과 유사하다. 따라서 거실은 여러생활 행위가 일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공간같이 보이나 가족단란을 위한 공간이라 정의 내려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3. 거실공간의 심리적 평가

먼저 거실 공간평가를 잘 나타내는 형용사쌍에 대해서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의 7단계 양극측도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용어와 부정적인 용어를 골고루 섞어 질문지를 만들고, 자료처리에서는 긍정적인 용어에서 부정적인 용어로 7점~1점으로 점수를 주었다(예를들면 <조화된-부조화된 : 7-1점><불완전한-완전한 : 1-7점>). 여기에 사용된 50개의 형용사에 대해 1차,2차의 사전조사를 거쳐

〈표 3〉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대한 공간평가요인의 설명

독립변인	회귀계수 (β)
요인1 평가성	-.135 (-.491)***
요인2 활동성	.045 (.139)
요인3 개방성	.188 (.043)
요인4 따뜻함	.011 (.023)
요인5 호화성	-.041 (-.066)
회귀상수	4.62
Adjusted R ²	0.179
F 값	9.29***

유의수준 *** P < .001

최종 12쌍의 형용사를 요인분석한 결과 5요인이 산출되었다. 요인1은 〈조화된-부조화된〉〈완전한-불완전한〉〈충실한-영성한〉〈세련된-촌스러운〉의 평가항목들로 공간자체의 종합적인 평가로 인식되므로 평가성(evaluation)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변량은 30.2%로 가장 높았다. 요인2는 활동성(Activity)요인으로 〈자유스런-구속된〉〈편리한-불편한〉〈단란한-단란하지 못한〉의 평가항목이 속하고, 요인3은 〈넓은-좁은〉〈높은-낮은〉이라는 항목으로 공간의 넓이, 높이를 나타내므로 개방성(Openness)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4는 〈강열한-온은한〉〈따뜻한-차가운〉으로 따뜻함(Warmness)요인, 요인5는 〈호화스런-소박한〉의 호화성(Luxury)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5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70%로 나타났다.

여기서 산출된 요인은 Osgood¹⁸⁾의 감정의미론의 주요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를 중심으로 실내 분위기를 평가한 國鳴¹⁹⁾, 田中²⁰⁾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산출된 5개의 거실평가요인들이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전체적인 설명력은 18%이며 p < .001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평가성요인은 부적관계에 있다.

즉 평가성요인의 점수가 낮을수록 거실분위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실내 가구가 너무 정돈된 형식적인 분위기보다는 다소 자유스런 배치가 효과적이라는 Alexander²¹⁾의 논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 가구배치에 관한 고찰

가구는 그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이나 평가기준이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종류를 인체를 지지하는 소파와 그것에 부착된 테이블과 사이드 테이블을 지지용 가구로 칭하며, 수납 및

〈표 4〉 가구배치와 가구배치 편리성

가구배치	구분(빈도)	가구배치 편리성 (평균)	
가지용 가구형	I형 (88)	2.16	
	L형 (56)	2.14	
	대면형 (13)	1.92	
	ㄷ형 (6)	2.16	
F 값		0.29	
지지용 가구 배치형태	코아형 (22)	2.23	
	벽면형 (88)	2.11	
	센터형 (53)	2.13	
F 값		0.15	
벽면 가구 형	I형 (112)	2.37	A B
	L형 (25)	1.72	
	대면형 (30)	2.33	
	분산형 (23)	1.87	
F 값		5.16**	

유의수준 **p < .01.

칸막이로 된 것과 악기, 전축등을 포함해서 벽면에 접해 배치된 가구를 벽면가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구배치에서는 지지용가구형은 I형, L형, 대면형, ㄷ형의 4종류, 그 배치형태는 실중양에 배치된 코아(core)형과 벽면에 접해서 배치된 벽면형, 양자의 중간에 속한 센터형의 3종류로 분류했다. 그리고 벽면가구형은 I형, L형, 대면형, 분산형의 4종류로 하였다.

똑같은 공간이라도 가구배치에 따라 가구사용의 식이 다르며, 그에 따른 공간평가가 또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가구배치의 편리성에 대해 거주자가 느끼는 「편리하다」 3점, 「보통이다」 2점, 「불편하다」 1점으로 각각의 가구배치와 차이검증을 한 결과<표 4>, 가구배치의 편리성에서 벽면가구형은 $p <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한벽면만 차지하는 I형이 L형보다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형으로 벽면가구를 배치하는 것은 비어진 벽면이 많이 생기므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고 이것이 사용상의 편리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지용가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거주자가 어느정도 지지용가구의 배치시 편리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지용가구의 대표적인 소파의 경우는 빈번히 교체하면서 편리한 배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가구배치와 가구배치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가구량에 관한 고찰

현대 각 가정의 거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한국적인 생활양식인 좌식생활을 하면서 입식가구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구량도 전통가옥에 비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에 맞는 가구량의 적정범위를 파악하여 제한된 공간을 가능한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본조사에서 실측한 거실내 가구량 즉, 평균 가구점유율은 <표 5>와 같다. 여기서 가구량을 세분화 시킨 상세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지지용가구, 벽면가구 그리고 이들을 합친 전체적인 가구에 대한 각각의 점유율을 산출했다.

기존의 거실내 가구량의 연구결과에서는 바닥점

<표 5> 거실 가구의 평균 점유율

(단위 %)

지지용점유율			벽면점유율			전체점유율		
바닥	벽면	공간	바닥	벽면	공간	바닥	벽면	공간
14.6	8.2	5.5	17.7	19.9	8.0	29.1	29.2	17.7

유율만 나타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가구면적 밀도가 40%를 초과할 때 가구로 인한 과밀현상이 나타나며 그때부터室的 상대적 협소를 유발하게 된다⁸⁾고 본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벽면이나 공간 점유율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비교대상을 찾기가 힘들고 외국의 연구와는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차이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가구나 실내공간이 입체임을 감안하고 거실내에서 벽면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밝힌 日本²⁰⁾의 연구를 고려하면 바닥점유율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실제와 다른 결과를 제시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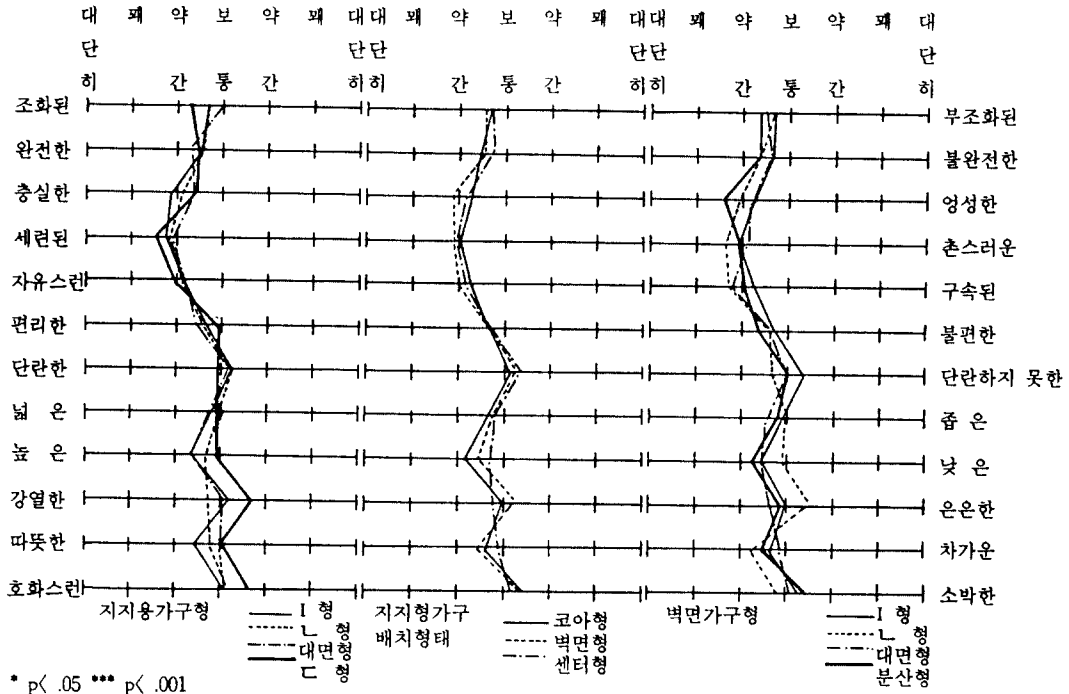
다음은 기거양식이 가구량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표 6>. 기거양식은 주로 인체를 지지하는 가구와 관련되므로 지지용가구의 점유율에 대해서만 고찰하였다. <표 6>에서 바닥, 벽면, 공간점유율은 모두 기거양식과 $p < .001$ 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바닥점유율은 입식,절충식에서 높고 벽면점유율, 공간점유율도 입식화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구량과 기거양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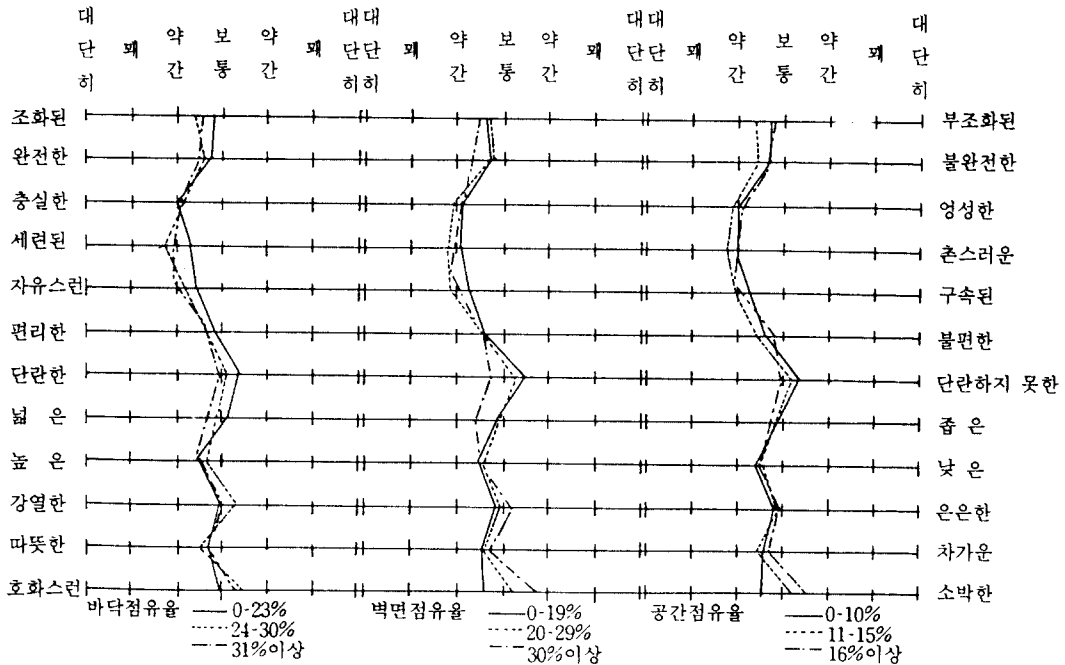
변인	구분 (N)	지지용 가구의 점유율		
		바닥	벽면	공간
기거양식	입식(75)	16.4 A	9.39 A	6.35 A
	절충식(85)	16.4 A	9.27 A	6.09 A
	좌식(31)	4.8 B	2.29 B	1.55 B
	F 값	25.2***	22.2***	18.4***

6. 가구배치와 양에 따른 공간평가

가구배치와 가구량에 따라 공간평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SD특점의 평균치profile을 그려 검토하였다<그림 1> <그림 2>.



(그림 1) 가구배치의 평균치 Profile



(그림 2) 가구량의 평균치 Profile

먼저 가구배치에서 지지용 가구형은 따뜻함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C형은 평가가 비교적 낮았고, 지지용가구 배치형태에서는 유의미한 차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평가성, 활동성요인은 벽면형이, 개방성요인은 코아형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고, 벽면가구형은 평가성에서 분산형이 비교적 평가가 높고, 활동성은 I형이 가장 낮았으며 호화성에서는 L형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지지용가구보다 평가의 폭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벽면가구의 배치를 잘 이용하면 공간분위기의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 본다.

가구량에서는 지지용과 벽면가구를 합친 전체가구량으로 평가항목의 평균치를 나타내었고, 각 점유율의 도수분포를 보고 3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우선 바닥점유율을 살펴보면 0~23%의 점유율은 대체로 평가가 가장 낮았고 31%이상에서 개방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소파와 같은 키가 낮은 가구들이 비록 바닥점유율은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공간상부는 전혀 채우지 않고 있어 시각적 개방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벽면점유율은 「단란한」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여 점유율이 높을수록 평가가 높았다. 공간점유율에서는 11~15%가 평가성, 활동성요인의 평가가 높으며, 「호화스런」에서 $p < .001$ 의 차이를 보여 점유율이 낮을수록 평가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가구배치는 지지용가구보다 벽면가구에서, 가구량은 다른 점유율에 비해 벽면점유율에 따라 공간평가의 변화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지용가구에 비해 벽면가구가 거실의 질적향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7. 가구 적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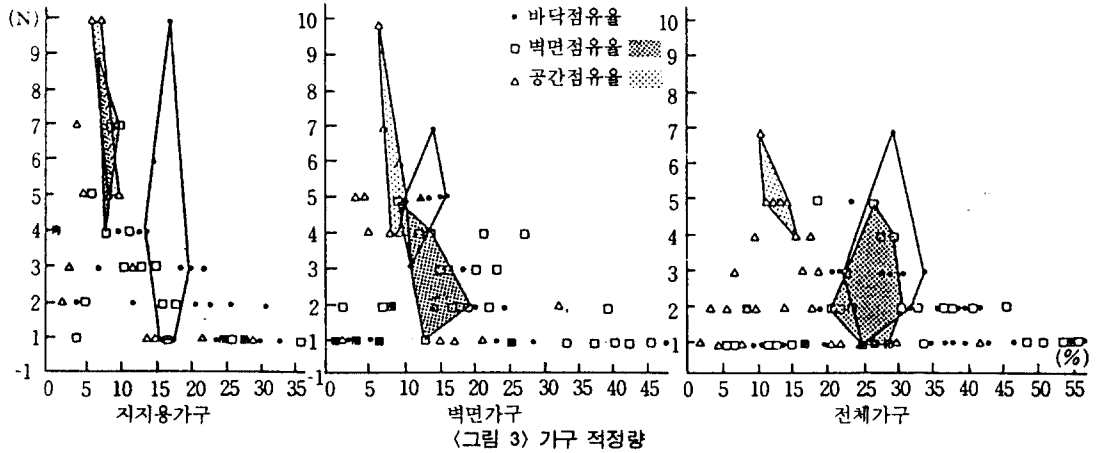
앞서 공간평가가 가구량에 따라 다양해지는 것과 거실내에서 가구량이 공간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²⁰⁾에서 볼때 가구 적정량 산출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특히 비교적 공간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이 받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거실에 적절한 가구량을 체계화 시켜 공간활용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조사대상가구의 거주자들이 공간평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가구량을 알아보기 위해 家具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가구크기를 모두 측정하고 거기서 나온 치수를 이용해서 가구의 바닥, 벽면, 공간점유율을 구했다.

이러한 가구량 즉 조사대상 191가구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가구점유율을 가지고 공간평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6가口中에서 공간평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다소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는 「보통이다」로 답한 집단은 평가가 적극적이지 않은점 즉, 불만인지 만족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바람직한 가구적정량을 산출하기 위해 불만족집단도 배제하였다.

우선 가구량에 의한 공간평가에서 만족하는 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가구점유율을 그림3과 같이 표시하고, 다시 이분포에서 사례수가 가장 많은 가구점유율을 중심으로 전체의 50%이내에 해당하는 분포를 선으로 이어 가구점유율의 범위를 만들었다. 즉 여기서 가구 적정량 산출의 기준은 가구점유율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서 만족하는 빈도분포를 나타내고 2차례의 검정으로 적정범위를 표시하여 각각의 가구 적정량으로 산출하였다(그림 3).

그 결과 바닥점유율에서 지지용 가구는 13~19%, 벽면가구 10~16%, 전체가구 23~34%이며, 벽면점유율은 지지용 가구 6~9%, 벽면가구 9~20%, 전체가구 21~31%이고 공간점유율은 지지용 가구 6~9%, 벽면가구 6~10%, 전체가구 11~16%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서술하였으나 가구는 그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이 달라지며 공간평가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점유율도 바닥점유율만을 고려한다면 가구의 높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평가를 행할때 반드시 가구를 적절히 분류하고 점유율 파악도 여러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산출된 결과는 실제 거주공간에서는 얻어진 결과이므로 대체로 이 범위에 포함되는 가구량이 국민주택 APT 거실에 만족되는 가구 적정량이라 보아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사료되나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본연구에서 제시된 가구 적정량에 대한 검증



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IV. 결론

실내 시환경 요소로 중요한 가구를 중심으로 공간평가의 정량화를 시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얻었다.

1) 공간평가 요인 중 공간 그자체의 종합적인 평가인 평가성요인은 거실분위기 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가구배치가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 편리성을 고려한 배치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가구배치의 편리성은 벽면가구가 I형에서 높았다. 2) 거실내 기거양식 중 입식은 가구의 바닥점유율, 벽면점유율, 공간점유율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입식가구 사용시 주의가 요구되며, 가구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가구배치 중 벽면가구의 분산형은 공간자체의 종합적인 평가로 인식되는 평가성요인의 점수가 높고, 활동성 요인에서는 I형의 평가가 낮은 배치 형태이고, 전반적으로 벽면가구배치와 벽면점유율이 공간평가에 있어 다양성을 보여 거실에서 벽면가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거실의 가구 적정량은 바닥점유율로는 지지용 13~19%, 벽면가구 10~16%이며, 가구분류를 하지 우선 가구량에 의한 공간평가에서 만족하는 집단에 없다면 23~34%이며, 벽면점유율은 지지용 가구 6~9%, 벽면가구 9~20%, 전체가구 21~31%이고 공간점유율은 지지용 가구 6~9%, 벽면가구 6~10%,

전체가구 11~16%로 산출되었다.

본연구에서 산출된 가구적정량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가구 적정량이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 Oxford, pp.388, 1977.
- 2) Margaret Mead, "Conference Behavior", Columbia University Forum summer, pp.20~25, 1967.
- 3) Imamoglu, V., "The Effect of Furniture Density on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Spaciousness and Estimation of Size of Room," in Kuller, R.(Ed.), Architectural Psychology : Proceeding of Lund Conference, Dowden, Hutchinson and Ross, pp. 341~352, 1973.
- 4) 김종인, "가구이용면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VOL. 16, No. 48, 1972.
- 5) 안호협, "아파트 가구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6) 김오성, "아파트 가구배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7) 강성미, "아파트 거실제실의 가구배치에 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8) 남경숙, "아파트 거실 가구 배치가 생활패턴에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2.
- 9) 이경희, 이주영, 정재영, “가구이용면에서 본 주공간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15, pp.89-90, 1978.
 - 10) 김일진, 조성기, 주거학, 동명사, p.67, 1975.
 - 11) 신경주, 주거학, 수학사, p.68, 1990.
 - 12) 박병진, 대학주거학, 기문당, p.51, 1978.
 - 13) 梁瀬度子 외 4, “團らん空間に影響を及ぼす諸要因に関する研究1”, 日本家政學會誌, Vol.40, No.1, pp.61~67, 1989.
 - 14) 梁瀬度子 외 4, “團らん空間に影響を及ぼす諸要因に関する研究2”, 日本家政學會誌, Vol.40, No.1, pp.69~73, 1989.
 - 15) 梁瀬度子 외 3, “團らん空間に影響を及ぼす諸要因に関する研究3”, 日本家政學會誌, Vol.40, No.2, pp.145~150, 1989.
 - 16) 太田さち, 梁瀬度子, “キッチンとのかかわりからみた 團らん空間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1”, 日本家政學會誌, Vol.41, No.9, pp.875~880, 1990.
 - 17) 太田さち, 梁瀬度子, “キッチンとのかかわりからみた 團らん空間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2”, 日本家政學會誌, Vol.41, No.9, pp.881~886, 1990.
 - 18) Osgood, C.E., “Studies on the Generality of affective mea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Vol.17, pp.10~28, 1962.
 - 19) 國嶋道子, “室内視環境要素の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 奈良女子大學 學位論文, 1985.
 - 20) 田中宏子, “住宅居間における裝備的要因としての家具が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 奈良女子大學學位論文, 1990.
 - 21) Christopher Alexander, A pattern Language, Oxford, pp.356, 1977.
 - 22) 이명옥, 안옥희,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I)”, 한국주거학회지 Vol.2, No.2, pp.1~12, 1991.